

# 고창군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

### 길이 70m·폭 30m 생태터널 완공 고창 전경 감상 전망데크도 설치

고창군과 장성군을 잇는 도로가 나면서 끊어진 영산기맥 생태축이 복원됐다.

고창군은 지난 14일 고창읍 월산리 솔재 생태터널에서 심덕섭 군수와 임정호 군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영산기맥'은 '호남정맥(내장산-백암산)'에서 갈라져 나와 고창 양고살재·솔재를 지나 영광, 목포 유달산에 이르는 총길이 160km의 전라북도 유일의 기맥(岐峯)이다.

터널 상부(생태통로)는 길이 70m, 폭 30m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동공간이 분리된 생태통로로 만들어졌다. 하부(도로부)는 길이 50m, 폭 15m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다.

고창읍의 멋진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잠시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에서 심덕섭(왼쪽 여섯번째) 고창군수와 임정호(왼쪽 일곱번째) 고창군의회의장, 군의원들이 준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쉬어갈 수 있는 전망데크로 설치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방장산-문수산의 산림과 인연 강 등 하천, 고창갯벌 연안의 생태축 연결을 완

성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환경도시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예 2개 기업 81억 투자유치

유망 중소기업인 (주)다성물산, (주)에이스안전유리 등 2개사가 남원 일반산업단지내 1만7441㎡에 투자를 확정하고 총 81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1명을 새롭게 창출한다.

남원시는 14일 (주)다성물산(대표 김준철), (주)에이스안전유리(대표 최호림)와 남원 일반산업단지예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주)다성물산은 조미김 및 김자반 등을 생산하며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해조류 전문기업으로 9,989㎡ 부지에 총 40억원(고용 37명)을 투자해 HACCP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량생산 제조라인을 일반산업단지예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분사도 경기도 안양시에서 남원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주)에이스안전유리는 국내외 산업용,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안전유리 가공 설비를 보유한 기업으로 산업용 안전유리 생산라인 체계화를 위해 부지 7452㎡에 41억원(고용 24명)을 투자한다.

두 기업의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는 저렴한 지가와 즉시 입주 및 작공 가능한 부지, 광양항과 인접으로 수출을 위한 수송과 접근성이 용이한 점 등을 장점으로 보고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고급의 장기화 및 경기 위축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미래산업 도시 남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오는 10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남원시가 개최한 'FAI 드론레이싱 사전(PRE)대회' 참가 6개국 70여명의 선수들이 대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 남원시 'FAI 드론레이싱' 사전 대회 개최

### 10월 본대회 준비 상황 점검

남원시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사전대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남원시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FAI 드론레이싱 사전(PRE)대회'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본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사전대회였지만 대한민국 항공협회와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주관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등 6개국에서 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본대회를 방불케하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참가 선수들이 FAI드론레이싱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던 이번 대회는 포인트 누적순위 16위 안에 들면 드론레이싱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회는 연습비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드론레이싱 포인트 1, 2위 선수들의 시상식, 톨미팅, 이틀에 걸친 드론레이싱 경기 등이 진행됐다.

치열한 경합 끝에 김민찬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이민서 선수, 3위는 홍풍의 마이클 치자피로프, 4위는 김민재 선수가 입상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 사전대회를 통해 10월에 남원에서 열리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남원시를 드론의 도시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전북교육청, 모든 학생에 맞춤형 교육비

### 전국 최초 '전북에듀페이' 지급 학교밖 청소년도...교육복지 확대

전북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비가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생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북 처음이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년별에 맞게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타디움,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자기 개발, 문화체험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 고등학교 2학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학습지원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진로지원비가 지급된다.

도내에 주소지를 둔 고등학교 단계(16-18세)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월 10만원(9월-12월 최대 40만 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올해 전북에듀페이 지급대상은 6만6000여명으로 총 168억30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북에듀페이 지급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도 교육청은 다음 달 초 전북에듀페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학지원금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신청 계좌로 입금하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을 받아 선불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도내 14개 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한 뒤 선불카드(바우처)로 받게 된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의 맞춤형 교육비"라면서 "도내 아이들 모두가 배움의 권리를 누리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군산 소재 에너지엔, GE서 감사패 수상

### 발전·화공기기설비 전문기업

발전·화공기기설비 전문기업인 에너지엔(대표 이사 박춘배)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차이나파트너서밋'에서 GE 베르노바(GE의 에너지부문 기업)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GE 최우수 협력업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에너지엔은 GE에 가스터빈용 냉각 열교환기와 스팀 응축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다. GE는 두 차례의 수상으로 전략적 공급업체인 에너지엔의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했다.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에 분사를 둔 에너지엔은 고품질의 화력·원자력 발전설비와 터빈발전기 부품, 석유화학산업 분야 설비를 GE, SIEMENS 등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발전·화공기기설비 전문기업이다.

내구성이 향상된 화력발전 시설의 가스열교환기 등 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용기' (Cask) 제작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차별화된 기술경쟁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터키 원전 기자재 공급 수주를 기반으로 유럽과 중동지역 원자력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박춘배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GE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설계·조달·시공(EPC)을 비롯해 한수원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군산경제에 주축을 이루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정읍시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침'에 따라 상반기보다 5명을 더 총원한 우수수렵인 30명으로 선발·구성됐다.

이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퇴치한다.

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